

‘한국 셔틀콕 미래’ 광주체고 안세영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

포브스, 30세 이하 청년 리더 발표 지난해 프랑스오픈 등 5개 대회 우승 ‘2019 가장 유망한 선수’로 주목

‘셔틀콕 천재’ 안세영(18·광주체고)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지난 12일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을 발표했다. 포브스는 미국·캐나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금융·벤처, 소비자 기술, 기업 기술, 예술 등 10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30세 이하 청년 리더를 총 300명 선정해 매년 발표한다.

포브스는 “안세영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BWF)으로부터 ‘올해 가장 유망한 선수(BWF신인상)’로 선정됐다. 지난해 뉴질랜드 오픈에서 2012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세루이를 꺾고 우승했으며, 캐나다 오픈에서도 우승했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BWF 메이저대회인 ‘2019프랑스오픈’ 등 5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맹활약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 카를리나 마린(스페인), 2019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푸살라 신두(인도), 지난해 세계랭킹 1위를 달렸던 타이 쩌잉(대만)을 꺾으며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2017년 광주체고 3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된 안세영은 빠르게 성장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2018년 3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341위를 기록했던 안세영은 이듬해 랭킹 99위로 뛰어올랐다. 2020년 1월에는 다시 90단계를 건너뛰고 랭킹 9위에 올랐다. 안세영은 지난 2월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경기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2020 태국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미리 확보했다. 한편 올해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서 한국은 총 25명이 선정됐다.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분야에서는 걸그룹 트와이스, 배우 박소담(28), 프로게이머 김세연(20·상하이드래곤즈) 등이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안세영

남북단일팀 상대한 스위스 폴리 여자 첫 남자 프로팀 단장 발탁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상대했던 스위스 폴리가 남자 프로팀의 행정 책임자로 발탁됐다. 당시 단일팀의 역사적인 올림픽 데뷔전에서 0-8 참패를 안겼던 스위스 주전 골리 플로렌스 셸링(31)은 최근 여자로는 처음으로 세계 정상급 남자 아이스하키 프로팀의 단장으로 선임됐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스위스 국가대표 골리로 활약한 셸링이 스위스 SC 베른의 단장이자 스포츠 디렉터로 선임됐다고 최근 전했다. 스위스 1부리그인 NLA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평균 관중이 1위다. SC 베른은 NLA에 속한 12팀 중에서 최고 명문팀이다. 지난 시즌을 포함해 최근 4년간 3차례나 챔피언에 올랐다. 셸링은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양키스와 같은 위상을 가진 이 팀의 새 단장으로 올랐다. 스위스는 물론 전 세계 아이스하키를 통틀어 여성이 남자 프로팀에서 이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셸링이 처음이다. 물론 SC 베른의 라이벌인 HC 루가노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장에 취임한 비키 만테가자의 사례가 있지만, 단장은 셸링이 최초다. 10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셸링은 남자 17세 이하, 20세 이하 리그에서 골리로 활약했다. 15세의 나이로 2004년 IIHF 여자 월드컵퍼인입에서 데뷔해 2018 평창올림픽 무대를 끝으로 은퇴했다. 스위스 여자 국가대표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셸링은 스위스 여자 18세 이하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을 맡아 지도자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셸링은 “(SC 베른 회장인) 마크 루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처럼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논의했고 그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잘해서 (올 시즌 9위였던) SC 베른을 다시 정상에 올려놓는 게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소년들 안심하고 생활체육 즐기세요”

광주시·전남도체육회 ‘2020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공모 선정

광주시·전남도체육회가 청소년이 안심하고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점역할을 맡게됐다. 13일 시·도체육회에 따르면 양 시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안전재단이 주관하는 ‘2020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17개 시도 중 광주·전남 등 9개 시도가 선정돼 국비(기금)를 지원받게 됐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사업수행 평가 등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비 600만 원 증액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문화를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체육회는 오는 8월에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캠프 참가자는 7월 중 모집할 계획이며 지역 청소년 관리 시설 또는 시체육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캠프는 소방 등 안전을 위한 교육, 풋살, 생존수영 등 종목 교실,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김장준 시체육회장은 “우리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스포츠안전캠프를 통해 서로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바른 인성을 길러 나가기를 바란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열린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체육회는 이번 선정으로 33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안전캠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도체육회는 기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 목포해양대학교와 콜라보(collab-



광주시체육회가 지난해 곡성군에서 개최한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입소식.

〈광주시체육회 제공〉

oration, 공동연구·협업)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CPR교육과 선박안전교육, 해양레포츠(생존수영) 프로그램 교육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생활체육 안전교실은 실습선 대피훈련 및 선박 안전교육, 요트 및 카약 등 레포츠 활동을 새로 편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체형형 콘텐츠를 활용한 스포츠 안전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스포츠체험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사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을 선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농심신라면배 바둑 8월로 연기 응씨배도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

바둑 최강국을 가리는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이 다시 8월로 연기됐다. 한국기원은 13일 제21회 농심배 본선 최종 3차전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농심배 3차전은 지난 2월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5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한국기원은 코로나19가 최근에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8월로 다시 연기했다. 농심배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국가대표 5명씩 출전해 연승전으로 패권을 가리는 바둑 국가대항전이다. 제21회 대회는 본선 1~2차전을 치른 결과 중국 선수 4명과 한국·일본 선수 각 1명이 남았다. 3차전 첫 경기는 한국과 일본의 마지막 생존자인 박정환 9단과 이아마 유타 9단이 맞붙는다.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3연승 하는 기사는 1000만원의 연승 상금을 받는다. 3연승 후에는 1승 추가할 때마다 10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이번 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바둑 올림픽’ 응씨배도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연합뉴스



벨라루스 축구장의 봄

디나모 브레스트 소속 치어리더와 응원단이 지난 12일 벨라루스 브레스트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디나모 브레스트와 아슬로치 민스크의 2020 벨라루스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벨라루스 프리미어리그는 지난달 19일 개막해 유럽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인 프로축구 리그다. /연합뉴스

‘골프 황제’ 우즈 홀인원 몇번? 총 20번 중 19번이 2000년 이전

골프에서 ‘홀인원’은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톱 랭커들도 마음먹은 대로 내기 힘든 결과물이다. 최근 ‘골프 황제’ 박인비(32)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25야드 거리에서 125차례 샷을 날리며 홀인원에 도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같은 채널에서 유소연(30)도 같은 시도를 했으나 역시 실패로 끝났다. 유리피어투어에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홀인원 성공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2017년과 2018년 도전자로 나선 에도아르도 몰리나리(이탈리아), 브랜던 스톤(남아공)은 모두 500번씩 샷을 시도해 무위에 그쳤다. 2019년 세 번째 주자였던 앤디 설리번(잉글랜드)이 230번째 샷에서 홀인원을 달성해 총 1230번 시도에서 첫 홀인이 나왔다. 유리피어투어는 당시 ‘평균적인 일반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10만 분의 1, 투어 프로의 경우 2500분의 1’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는 어떨까. 우즈는 13일(한국시간) 미국 CBS의 지난해 마스터스 재방송에서 진행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홀인원은 총 20번 했는데 그중 19개가 2000년 이전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성기 시절에는 홀인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며 “2000년 이후 홀인원이 없다가 2018년 프레드 커플스, 아들 찰리, 지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20번째 홀인원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8살 때 생애 첫 홀인원을 했다는 우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공식 경기에서는 1996년, 1997년, 1998년에 한 번씩 홀인원을 했고 이후로는 홀인원 기록이 없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른 더 도어
3관	1917, 주디,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
4관	n번째 이별중
5관	인버저블맨
9관	오른 더 도어
7관	씨네커를 월드 워 Z, 정직한 후보
8관	씨네커를 1917, 기도의 힘, 더 터닝 스케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